

신의 인간애와 시민권의 보편적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

양순철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상임대표

저는 개신교회의 장로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 통화는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에 제가 참여했으면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소득에 기독교를 앞에 붙인 그 명칭에 순간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신앙과 기본소득, 교회와 정치 그리고 이상과 현실 등등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결합이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이 결합이 정당할까? 자기 정체성으로부터의 질문과 그에 토대한 답변이 그 출발점이어야 하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의 자기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지며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신앙에 기초한 ‘자율적 의무’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시/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하는 것’이 그 뿌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강령을 몸소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자율적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자 속제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배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인간적 삶이 가능한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나아가 대다수 인간에게 인간적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합법화된 제도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사랑도 구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은 인간의 부정적인 행위로 생기는 비인간화를 만드는 원인

을 제거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구체적인 일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을, 소외당한 사람에게는 사회에 합류를 그리고 좌절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 행위들은 사회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살게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 가치에서 솟구치는 사랑하는 일의 구체성이 또한 현실적합성을 갖을 때, 그 사랑은 문제해결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습니다.

이 예수님이 추구하신 가치와 사회의 복지적 가치는 그 발원의 뿌리가 다르나 실천의 친화성은 매우 강합니다. 이 두 가치는 뿐만 아니라 ‘신의 인간애’가 드러나는 두 양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적 신앙에 의한 인간애와 시민권을 보장하는 정부정책이 서로 포용할 때, 그 추진력이 강해지고 결실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신앙은 마음을 잡아주고 정책은 실천의 손/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넘어 잉여인간의 출현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의 인간애와 시민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두 기둥이 하나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뿌리를 개인적 삶으로, 신앙적 가치를 사회적 제도로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책의 협력은 한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기둥으로 나뉩니다. 이는 인간죄의 용서와 구원, 고아와 과부, 노인에 대한 구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체와 재구축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일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개인적인 구제를 넘어 그 사랑의 지속가능성으로 비인간화의 문제해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라 확신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길 바라며 작지만 발걸음을 더합니다.